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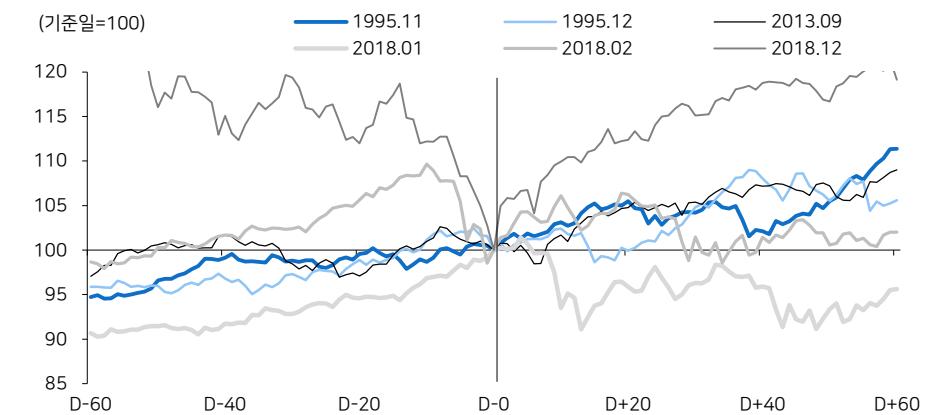
미국 셧다운보다 다른 변수 주목 필요

지난주 미국 하원의장이 새로운 임시 예산안을 제안했음에도 합의 기한을 5일 앞두고 합의 불발에 따른 셧다운 우려 점증. 13일 하원 규칙위원회(The House Rules Committee)가 제안안을 처리할 예정, 14일 하원 전체회의에서 표결 예정. Market Watch는 미국 조사기관들은 정부 폐쇄 확률을 40% 전후로 예측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합의 가능성은 높게 본다고 보도

셧다운 현실화는 증시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음. 1995년 이후 6번의 정부 셧다운 발생, 기간은 최소 하루(9시간)에서 최대 34일까지 이어졌던 경험. 2018년 12월 사례를 제외하면 셧다운 기간동안 S&P500 지수 수익률은 평균 +1.1%. 2018년에는 34일간 셧다운이 이어졌었는데, 기간 수익률은 +10.3%에 해당. 이 때 주가 변동은 시장 기대를 상회한 12월 FOMC의 금리인상 충격에 낙폭을 확대하다가, 1월초 연준의장의 'Be patient' 발언에 반응하며 반등 시작, 셧다운보다는 다른 변수가 증시를 좌지우지함

11월 17일이 임시 예산안 합의 기한. 다만 이를 앞두고 더 중요해보이는 이벤트는 오늘밤 발표될 10월 CPI, 내일밤 발표될 10월 소매판매, 11월 15일 예정인 미-중 정상회담. 미국 증시는 예산안 합의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할 해당 이벤트들을 기다리는 모습

그림1 1995년 이후 연방정부 셧다운 전후 주가 추이: 셧다운보다는 다른 이슈가 문제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